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2014. 6

충현의 만나

Manna of Choonghyun

가정예배
잠언·전도서·마가복음·누가복음
구역예배(남성구역예배)·G.B.S.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영원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Contents

- 10 1과 아브라함을 부르심
- 18 매일성경묵상 잠언 27장 ~ 잠언 31장
전도서 1장
- 26 2과 그 날에 여호와께서
- 34 매일성경묵상 전도서 2장 ~ 전도서 7장
- 42 3과 구십구 세 때에
- 50 매일성경묵상 마가복음 7장 ~ 마가복음 12장
- 60 4과 아브라함의 믿음
- 68 매일성경묵상 마가복음 13장 ~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장 ~ 누가복음 2장
- 76 5과 언약과 선택의 자녀, 이삭
- 84 매일성경묵상 누가복음 3장
- 86 남성구역예배

6 June 2014

주 일	월 요 일	화 요 일	수 요 일
1	2 잠언 27장	3 잠언 28장	4 잠언 29장
8 오순절(성령강림주일)	9 전도서 2장	10 전도서 3장	11 전도서 4장
15	16 마가복음 7장	17 마가복음 8장	18 마가복음 9장
22 제3차 학습 · 세례식	23 마가복음 13장	24 마가복음 14장	25 마가복음 15장
29	30 누가복음 3장		

7

Jul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5 잠언 30장

6 잠언 31장

7 전도서 1장

12 전도서 5장

13 전도서 6장

14 전도서 7장

19 마가복음 10장

20 마가복음 11장

21 마가복음 12장

26 마가복음 16장

27 누가복음 1장

28 누가복음 2장

제2차 청지기훈련

교회 주요 일정

6월 8일

오순절(성령강림주일)

6월 22일

제3차 학습·세례식

6월 27일

제2차 청지기훈련

나의 주요 일정

- ❶ 2014년 제2차 청지기훈련(6월 27일 금요일, 7시)에 모든 성도가 기도로 준비하여 참석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 ❷ 충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❸ 김동하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사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이 십자가만 붙들게 하소서.
- ❹ 충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 ❺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 ❻ 충현의 교회학교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깨달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천국일꾼이 되게 하소서.
- ❼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 ❽ 1년 1인 1명 전도와 교회 주변 전도 및 동역 교회 전도 지원을 통하여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 ❾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❿ 충현교회의 재단들(유지·동산·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양로원, 가평·함양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 ⓫ 장로·안수집사·권사 피택자들이 교육을 통하여 복음으로 온전히 깨져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영원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히 10:23).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요 3:16).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영원한 보증이며,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히 13:5~6).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히 13:8).

2014년 6월을 맞이하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매일성경묵상

가정예배·구역예배(남성구역예배)·G.B.S.

HOLY BIBLE



성령 충만의 첫 번째 목적

신유의 능력을 얻기 위해 성령님을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를 얻기 위해 성령님을 원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증거가 더욱 효과가 있도록 만들기 위해 성령님을 원한다. 병을 치료하고 방언을 말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증거하는 일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신약 성경도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직 우리의 목적을 위해 봉사하는 종이 되시도록 만들 수는 없다. 신유, 방언, 증거 같은 2차적인 목적을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몰두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예수 그리스도)이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이상에 눈뜨게 하신다. 마음 속에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은 현재의 체험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원대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열정으로 충만해진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행 2:38).

- A.W. 토저

Tip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Holy Spirit)은 성부 • 성자와 함께 동등한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이시다(고전 2:10). 구약 시대에는 창조에 역사하시고(창 1:2 욥 33:1), 지혜를 주시며(창 41:38 출 31:3), 예언케 하셨다(민 24:2 삼상 10:10 대하 15:1). 신약 시대에 초자연적인 능력은 '성령'에 의하는 것으로(마 12:28), 성령은 성도의 생활을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어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다(고전 7:40 고후 3:3 빌 3:3 벧전 4:14 요일 4:2). 성령님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오셔서 성도와 함께 있고, 속에 거하시면서(요 14:16~17)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요 15:26).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하였다(행 2:2). '바람' (왕상 19:11 시 104:4)과 같이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충만하였다는 것이다. 이어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행 2:3). '불' (출 3:2~5; 13:21 마 3:11)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상징한다.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두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다.

1

주간충현에 게재된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읽으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심

| 초 점 |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모여라

| 찬 송 |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 본문 | 창세기 12:1~3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㉑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㉒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1 주일

2 월요일

☐ 참언 27장

3 화요일

☐ 참언 28장

4 수요일

☐ 참언 29장

5 목요일

☐ 참언 30장

6 금요일

☐ 참언 31장

7 토요일

☐ 전도서 1장

※ 기독교와 세상의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된 스테반의 설교를 정리해 보면(행 7:1~4), 아브라함이 아버지인 데라를 따라서 고향인 갈대아 우르, 즉 메소포타미아를 떠나기 전 고향에서 살고 있을 때에 계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떠나라 하심

※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창 12:1)

아브라함에게 내려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명령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땅, 미래가 예측 가능한 땅,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는 땅, 자신에게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땅을 버려야 하며, 절대로 그곳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것은 현재는 알 수 없기에 오직 믿음으로 내디뎌야 하는 땅, 오직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는 땅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철저한 순종이 요구되는 일이었습니다.

※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 이 세상에 오셨다'(요 1:18)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시나 하나님과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의 형체를 가지사 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셨으니 곧 에 죽으심이라”(빌 2:6).

※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 함께 있으리라”(마 28:19~20).

“오직 □□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이 되리라”(행 1:8).

세 가지 약속을 주심

※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세 가지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약속은 ‘□□□’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지속적으로 들려주시던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었습니다(창 15:5). 하나님은 □□을 통해서 이 약속을 재조명하시고(창 26:4), □□에게 이를 다시금 약속해 주셨습니다(창 32:12).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은 □□□ 시대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며(출 1:7), 이스라엘의 □□ 시대에는 이 언약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왕상 3:8).

하나님의 두 번째 언약은 그의 ‘□□’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와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막대한 □□를 받을 것을 약속받았으며(창 13:14~15), 그 약속의 땅에서 그가 명성을 얻게 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약속하셨던 이 □□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을 향하고 있으며, 그 □□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이 여김을 받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땅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요 영원히 하나님의 □□가 임하는 모든 곳을 나타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번째 언약은 복의 ‘□□’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참된 복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갈 3:6).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바로 칭의와 구원의 복이며, 영생인 것입니다.

영적 권위를 주심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를 받았습니다(창 12:3). 이것은 아브라함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를 높이고 복을 빌어주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반대로 아브라함과 악한 관계를 맺고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나아가 이 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이기도 합니다.

※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현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믿음의 기도 |

- 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 ② 충현의 모든 성도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 ③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를 통해 민족 복음화를 이루게 하소서.

순 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
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에베소서 5:3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
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2:11

본문 · 잠언 27장 / 찬송가 · 304장

●●● 미련한 자는 항상 비교의식 속에 살면서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더 잘한다는 칭찬을 받으면 분노합니다(2~3절). 미련한 자의 이러한 분노는 매우 잔인하며 갑자기 밀려오는 홍수같이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는 누가 서리요”(4절). 잠언 기자는 분노 자체보다 분노를 담고 있으며 쉽게 변하지 않는 미련한 자의 마음을 지적합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찼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22절). 인간의 미련한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권면합니다. “내 아들이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11절).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눅 24:25). 미련한 자들은 인간의 정욕과 죄악의 본성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싫어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육체의 일이 그들의 생활 가운데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갈 5:25~26). 우리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찼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잠 27:22)

Though you grind a fool in a mortar, grinding him like grain with a pestle, you will not remove his folly from him.(Prov. 27:22)

· 절구와 공이(22절): 일곡의 찌질을 벗기거나 빵아서 분말을 만들 때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도구들이다

기도제목 ① 십자가의 은총을 의지하여 미련함을 버리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② 2014년 제2차 청지기훈련(5월 27일 금요일, 7시)에 모든 성도가 기도로 준비하여 참석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 의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지혜로운 아들로 인정을 받습니다(7절).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됩니다(13절).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총을 누리고(14절), 발씀을 성실히 행함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18절). 의인은 결코 자기의 마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입니다(26절). 그러나 악인은 의인과 정반대로 살아갑니다. 악인의 가장 큰 특징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림으로 공의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4~5절). 게다가 악인은 의인을 악한 길로 유인하여 함정에 빠뜨리며(10절),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숨깁니다(13절).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강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재앙에 빠지고 맙니다(14절).

예수님께서서는 의인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인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말씀하십니다(마 12:35). 악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의인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삽니다(행 5:29).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기 때문에(롬 1:17) 십자가 복음을 더 힘있게 외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갈 2:16).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의 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의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의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잠 28:5)

Evil men do not understand justice, but those who seek the LORD understand it fully. (Prov. 28:5)

•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한다(4절) : 본절에서 율법은, 모세오경 등에 구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는 악행을 일삼는 자들을 오히려 칭찬함으로써,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심지어 악을 줄 기까지 한다.

기도제목 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중현교회,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본문 · 잠언 29장 / 찬송가 · 204장

●●● 다윗에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중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 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왕상 3:9).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송사를 듣고 진실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총명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이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왕의 공의로운 판단과 다스림은 나라를 견고케 하지만, 뇌물이 통용되는 나라는 결코 바로 설 수 없습니다(4절). 고위층의 부정부패는 모든 나라 전역에 누룩처럼 번지게 됩니다(12절). 그러므로 지혜로운 왕은 관원이든 종이든 자기 자식이든 간에 차별 없는 공의로운 징계로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15~19절).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라나 가정이나 모든 권세와 다스림의 기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나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18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준행하는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롬 12:3).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의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잠 29:14)

If a king judges the poor with fairness, his throne will always be secure. (Prov. 29:14)

- 묵새(18절) : 선지자나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것을 총칭한다.
- 포학한 자(13절) : 고리대금업자를 가리킨다.

기도제목 ①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은총을 찬송하며,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소서. ② 김동하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사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로, 안수집사, 권사들이 십자가만 붙들게 하소서.

기도노트

●●● 이 장은 아굴의 잠언으로, 아굴은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5절).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8절).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아굴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요, 인간의 연약함을 토설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최우선에 두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도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요 8:50).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 2:8).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빌 2:11). 십자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을 취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참된 신자가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라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잠 30:5)

Every word of God is flawless; he is a shield to those who take refuge in him.(Prov. 30:5)

• **아계의 아들 아굴(잠)** : 아계, 다굴 등의 이름은 본질에서만 나오며 그 정확한 신분에 대해서는 밝혀져 있지 않다. 특히 아굴의 신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가장 일반적인 견해로서, 아굴은 솔로몬 왕을 보좌하고 지혜와 시를 함께 읊었던 현자들 중의 한명이었을 것이다.

기도제목 ①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② 총현교회에 주신 ③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본문 · 잠언 31장 / 찬송가 · 322장

●●●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을 훈계한 잠언입니다(1절). 왕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말하고 있는데, 공의와 술의 관계를 강조하며 교훈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급게 할까 두려우니라”(5절). 왕이 공의를 행하는데 있어서 술은 해악을 끼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나실인에게 술을 멀리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삿 13:7). 왜냐하면 나실인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즉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자는 술에 취함으로 인하여 방탕할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엡 5:18).

르무엘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현숙한 여인에 관해서도 교훈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하니라”(10절). 그렇다면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현숙한 여인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여인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30절). 세상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은 거짓되고 헛될 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두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으로 주신 십자가 복음만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잠 31:30)

Charm is deceptive, and beauty is fleeting; but a woman who fears the LORD is to be praised.(Prov. 31:30)

• 르무엘 왕(1절) : ‘르무엘’이라는 왕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데 이 왕의 신원에 대하여 대충 세 가지로 요약된다. ①앗사 지방의 왕 ②솔로몬 왕의 다른 이름 ③ 이상적인 왕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이름. 이 가운데 두 번째 견해가 학자들 간에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기도제목 ① 자기를 부인하고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중심의 하루가 되게 하소서. ②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기도노트

●●● 전도자는 사람이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를 질문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선언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2절). 전도자는 모든 것이 헛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으나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8절). 여기서 만물의 피곤함은 새로울 것이 없는 인생의 단조로움과 반복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9절). 사실상 동일하게 반복되는 일상의 단조로움에서 인생의 허무함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삶의 회의가 밀려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은 이같은 인생의 원인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13절).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누구나 겪고 있는 일반적인 인생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괴로운 인생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엡 2:1). 비록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날마다 겸손하게 회개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신자는, 괴롭고 헛된 인생 가운데서 허무와 낙심을 버리고 십자가 복음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전 1:14)

I have seen all the things that are done under the sun; all of them are meaningless, a chasing after the wind. (Eccl. 1:14)

•전도서 : 전도서의 어원은 ‘모여든 회중에게 종교적 진리를 전달하는 자’란 뜻을 지닌 ‘전도자’(1절에서 유래됨. 전도서는 솔로몬 생애 말기인 B.C. 935년 경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한 인간인 솔로몬이 인생의 황혼기에 인생 여정을 회고하여 얻은 삶의 지혜를 기록하고 있다.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겸손히 기도하게 하소서. ② 장로 · 안수집사 · 권사 피택자들이 교육을 통하여 복음으로 온전히 깨져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성령의 열매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신자는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의 삶에는 열매가 맺힌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갈 5:22~24). 조금 쉽게,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자.

1. 사랑(Love) 겸손하고 섬기는 마음,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아니하는 마음, 소외를 주지 않고 덮어 주고 감싸는 마음, 시기 질투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는 마음 - (육체의 소욕: 증오, 투기)
2. 희락(Joy) 항상 기뻐하는 마음, 매사에 감사하고 만족감을 느끼는 마음, 매사에 긍정하는 마음, 좋은 것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창조하는 마음(롬 14:17) - (육체의 소욕: 염려, 고통)
3. 화평(Peace) 모든 사람과 평화하는 마음, 내가 옳다 하더라도 상대에 맞추는 마음, 나에게 맞추지 않고 상대에게 여유를 줄 수 있는 마음, 모든 사람의 이익을 좇아 은혜를 가지는 마음, 나를 드러내지 않고 걸림이 없는 마음, 언행에 편벽이 없는 마음(롬 5:1) - (육체의 소욕: 분쟁, 원수 맺는 것)

4. 인내(Patience) 오래 참음의 열매 참음, 모든 일에 성급하지 않는 마음, 언행에 조급하여 그르치지 않는 마음, 꾸준하고 지속적인 마음, 순간적인 실망이나 낙담을 하지 않는 마음, 고통과 시험, 환난에 요동하지 않는 변함없는 마음 - (육체의 소욕: 경솔)
5. 자비(Kindness) 겉으로 상대를 판단하여 결정하지 않는 마음, 금술과 구제의 마음, 언행에 경솔하지 않는 마음, 모든 사람에게 관대한 마음, 상대를 모함하지 않는 마음, 상대의 성공을 원하는 마음(골 3:12) - (육체의 소욕: 무관심, 냉담)
6. 양선(Goodness) 서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는 마음,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마음, 상대를 무시하지 않고 상처를 주지 않는 존중의 마음, 분명하지 않은 일로 비판을 하거나, 나서지 않는 마음 - (육체의 소욕: 불친절)
7. 충성(Faithfulness) 매사에 근면하고 적극적인 마음, 나라에 충성하고 이웃을 죽도록 사랑하는 마음, 영적인 지도자나 가르치는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엡 4:1~3) - (육체의 소욕: 배신)
8. 온유(Gentleness) 숨털 같은 마음, 넓게 포용할 수 있는 마음, 상대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마음, 포근하고 부드러운 마음, 남의 허물을 감싸는 마음 - (육체의 소욕: 포악)
9. 절제(Selfcontrol) 세상의 것을 탐하는 욕심을 버리는 마음, 자기를 제재하는 마음(고전 9:27) - (육체의 소욕: 방탕함)

2

주간충헌에 게재된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읽으세요.

그 날에 여호와께서

| 초 점 |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포하라

| 찬 송 |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 본문 | 창세기 15:17~21

⁽⁷⁾해가 저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⁸⁾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⁹⁾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몬 족속과 ⁽²⁰⁾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²¹⁾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8 주일

9 월요일

☐ 전도서 2장

10 화요일

☐ 전도서 3장

11 수요일

☐ 전도서 4장

12 목요일

☐ 전도서 5장

13 금요일

☐ 전도서 6장

14 토요일

☐ 전도서 7장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본격적으로 언약을 체결해 주십니다.

※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며 주셨던 약속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창세기 12장에서 주셨던 동일한 약속인 ‘ ’과 ‘’에 대한 보장이었습니다.

네 방패요 큰 상급이라

※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방패(shield)와 상급(reward)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든 로부터 막아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급이 되신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가 보장되었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없애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였습니다.

※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창 15:2~3)

아브라함은 자신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까닭에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 차례 약속을 하셨지만(창 12:2,7; 13:16), 그는 자신의 아내 사라의 불임 때문에 많은 자손을 갖는 일은 어렵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못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밖으로 인도하셔서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에게 □□□으로 교훈하셨습니다(창 15:4~6). 그로 인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었고, 이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처럼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격려에 의해서 주어진 확신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롬 4:13, 18 _____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창세기 15:12~14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출 1:8~10, 12~14; 13:35~39).

※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약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한 후에야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을 깨닫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자손은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시고, 그의 후손들을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창 15:15~16)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들어가게 될 땅은 □□□ 족속의 죄악이 가득하게 차서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땅이었습니다(창 15:18~21).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주신 땅은 □를 체결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는 대리자들로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방패와 상급이 되십니다. 죄와 사망과 모든 악한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넉넉한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된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후손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또 네가 많은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수 있으리라”(딤후 2:2).

※ 창세기 15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언약과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승리, 그리고 후손과 약속의 땅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교훈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 믿음의 기도 |

- ① 여름수련회와 성경학교를 믿음으로 잘 준비하게 하소서.
- ②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일꾼들이 자라게 하소서.
- ③ 온 성도가 동역 교회 전도 지원에 동참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정 직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사도행전 24:16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레위기 19:11

본문 · 전도서 2장 / 찬송가 · 526장

●●●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자기보다 더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도자는 자기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10절).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소유한 것들이 결코 행복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전도자의 고백은 이렇게 바뀝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11절).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이 고백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참된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 4:14).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거나 주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허무와 낙심이 아니라 영생과 기쁨을 주기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요 7:37~38). 인생의 자랑과 정욕에 가득 찬 세상의 것을 소유하려는 욕심을 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기쁨으로 영생의 샘물을 마음껏 마십시오(사 12:3).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전 2:22)

What does a man get for all the toil and anxious striving with which he labors under the sun?(Eccl. 2:22)

• 해 아래(11,17~20,22절) : ‘해 아래’란 말이 거의 매절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죄 아래’, ‘사탄의 권세 아래’(롬 5:12~15), ‘그리스도 밖에’(엡 2:12)로 대치될 수 있다.

기도제목 ①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주님의 인자와 진실을 찬양하게 하소서. ② 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기도노트

●●●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11절). 인간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육신은 잠깐입니다. 풀과 같고 안개와 같습니다. 다 지나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십니다. 인간은 범죄하였고, 그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은 죄를 용서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얻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전까지는 참된 만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고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써 인간의 죄를 구속하셨으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과 참된 소망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마 16:26)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도 영원한 생명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전 3:14)

I know that everything God does will endure forever.(Eccl. 3:14)

· 위·아래(21절): ‘위’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아래’ 또는 ‘뒀’은 죄 아래 있는 세상을 의미한다. 전도자는 죽음을 포함한 인생의 모든 비밀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닫게 된다. 바로 여기에 전도자의 신앙 고백이 있다.

기도제목 ①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가정의 머릿돌이 되게 하소서. ② 총현의 교회학교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깨달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천국일꾼이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본문 · 전도서 4장 / 찬송가 · 92장

●●● 전도서 솔로몬은 해 아래서 학대 받는 모든 사람을 보았습니다. “보라 학대 받는 자들의 눈물이라도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1절). 세상에서 학대 받는 자들은 억울하고 괴로워 눈물을 흘리지만 세상에서 그들을 진심으로 위로할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에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모세가 양을 치고 있는 중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출 3:7).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불쌍한 인간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요 10:14~15).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는 양의 필요를 정확히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무엇인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고후 1:5).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위로자 되신 주님,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전 4:12)

Though one may be overpowered, two can defend themselves. A cord of three strands is not quickly broken. (Eccl. 4:12)

• 내가 누구를 위하여(8절) : 약척스러운 정도로 이기적으로 살던 자가 문득 자신을 깨닫고 부르짖는 절규이다. 그의 이기심에 기인한 모든 노력은 결과적으로 그 자신에게도 불만과 고통만을 주었다.

기도제목 ① 십자가의 복음을 사모하게 하시고 복음 위에 서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본문 · 전도서 5장 / 찬송가 · 438장

●●●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19절).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함으로써 이 즐거움은 사라지고 오히려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행 3:19). 죄 용서함을 받아야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죄 사함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롬 8:1).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송할 때에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라고 합니다. 천국에 슬픔이 있을까요? 천국은 기쁨과 즐거움만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전 5:20)

He seldom reflects on the days of his life, because God keeps him occupied with gladness of heart. (Eccl. 5:20)

• 네 발을 성결지어대(1절): ‘행동을 조심하라, 네가 행하고 있는 바와 가고 있는 곳을 기억하라’(시 119:59)는 뜻으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발을 씻는 결례나 거룩한 장소에 들어갈 때 신을 씻는 습관을 염두에 둔 표현인 듯하다. 따라서 이 명령은 경건하고 진지한 태도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예배에 임하라는 뜻이다.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걷게 하소서. ② 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기도노트

본문 · 전도서 6장 / 찬송가 · 95장

●●●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7절). 사람은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수명을 얼마간 연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도서 기자는 일하거나 먹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먹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더 높은 무언가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고후 5:17), 오직 자기 보존만을 추구하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지름길입니다(막 8:34~38).

참된 만족은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엡 6:6).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요 4:34).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참된 만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시 16:11).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이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전 6:9)

Better what the eye sees than the roving of the appetite. This too is meaningless, a chasing after the wind.(Eccl. 6:9)

• 입을 위함(7절) : 하늘나라에 속하지 않는 자는 결국 먹기 위해 사는 셈이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식욕은 결코 충족되지 않는다. 또한 그것을 위한 인간의 모든 수고는 헛되다.

기도제목 ①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게 하소서. ② 2014년 제2차 청지기훈련(6월 27일 금요일, 7시)에 모든 성도가 기도로 준비하여 참석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14절).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형통할 때도 있고, 곤고할 때도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곤고한 날, 환란의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곤고한 날이 있습니다. 환란은 누구에게나 닥쳐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환란을 당합니다. 아마 예수님을 믿어서 환란을 당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전도서 기자는 환란 당할 때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16:33).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떠난 후에 제자들이 당하게 될 고난과 핍박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보증해 주심으로써 용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또한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곤고한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승리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전 7:13)

Consider what God has done: Who can straighten what he has made crooked?(Eccl. 7:13)

• 열 명의 권력자들(19절) : 열이란 수는 완전을 나타내는 숫자이다. 즉 ‘열 명의 권력자들’이란 적의 공격으로부터 성을 지키고 도님을 만할 능력이 있는 지도자들의 수를 말한다. 그런데 전도자는 여기서 그들보다도 한 명의 지혜자가 더 능력이 있다고 말한다.

기도제목 ① 우리 교회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되도록,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 전도와 교회 주변 전도 및 동역 교회 전도 지원을 통하여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노트



모순처럼 보이는 십자가 진리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기독교 신앙을 과학, 철학 및 그 밖의 자연적이고 합리적인 것들과 조화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그들의 시도는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나는 믿는다. 또한 내가 읽고 들은 바에 따라 판단하건대, 이런 시도는 과학과 철학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기독교 신앙 체계의 뿌리에 놓여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설(逆說)'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타락한 인간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거부할 때 기독교의 능력이 나타나는 법이다. 십자가의 진리는 모순처럼 보이는 것들에서 드러난다. 교회의 증거가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교회가 '설명할 때'가 아니라, '선포할 때'이다. 왜냐하면 복음은 이성(理性)이 아닌 신앙에 호소하기 때문이다. 증명될 수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신앙이 필요 없다. 신앙은 실험이나 논리적 증명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다.

십자가는 '자연인(自然人)', 즉 '거듭나지 못한 사람'과 완전히 대립된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철학은 자연인의 사고(思考)와 정면충돌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道)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단언했다(고전 1:18).

AW. 토저

3

주간총회에 게재된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읽으세요.

구십구 세 때에

| 초 점 |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믿음의 근거로 삼으라

| 찬 송 |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 본문 | 창세기 17:1~5

⁽¹⁾아브람이 구십구 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²⁾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³⁾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⁴⁾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⁵⁾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15 주일

16 월요일

☐ 미가복을 7장

17 화요일

☐ 미가복을 8장

18 수요일

☐ 미가복을 9장

19 목요일

☐ 미가복을 10장

20 금요일

☐ 미가복을 11장

21 토요일

☐ 미가복을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 번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창세기 12장에서 언약의 기초를 마련하셨으며(창 12:1~3), 두 번째로 창세기 15장에서 실제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창 15:18).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그동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창 17:2). 그 두 가지 방법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의 □□을 각각 바꾸신 것과 □□라는 의식을 치르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함

※ 하나님으로부터 세 번째 언약을 재확인받기 전에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했습니까?(창 16:16)

사실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실제로 언약을 맺어 주시며, 그 언약을 거듭 확신시켜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 칠십오 세 때에 갈대아 □□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에서 지체하였습니다(창 11:31). 또한 그는 창세기 15장에서 □□ 언약을 받고도 창세기 16장에서 □□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적인 방법으로 성취하려고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래의 □□을 바꾸어 주시고 □□를 행하게 함으로써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언약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했습니다(창 17:17).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성실하심

아브라함의 언약함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 이후에 지속적으로 자신의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긴 과정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셨습니까?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

오늘의 본문 1절을 보면, '나는 하나님이라' 라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 나타납니다.

※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능하심을 어떻게 드러내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겼을 때(창 17:17),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이 전능하신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고, 그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생하는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렇기에 훗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 11:19 _____

우리의 믿음의 근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성실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15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사로의 병을 고치실 수 있었으나, 일부러 지체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가서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생명을 주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전능하심에 있습니다.

※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전능하심이 아닌 인간의 감정이나 경험에 둘 경우에 어떤 잘못에 빠지게 되는지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 믿음의 기도 |

- ① 연약한 성도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치유되어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소서.
- ②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 ③ 성도들이 가정과 구역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6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로마서 4:20~21

본문 · 마가복음 7장 / 찬송가 · 264장

●●●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하고 모든 악한 것이 사람의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1~23절). 그리고 두로 지방에서 귀신 들린 어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원하는 여인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갈릴리 호수에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24~37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겉으로 보이는 전통을 지키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모습이 외식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이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을 지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부정한 것을 가까이하지 않고 손을 씻는 등의 전통으로 스스로 정결해질 것이라 여겼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이미 악한 것들이 사람의 속에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 사람이 더러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자신들의 행위로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사람은 결코 행위와 공로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라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려던 마음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막 7:15~16)

Nothing outside a man can make him 'unclean' by going into him. Rather, it is what comes out of a man that makes him 'unclean.' (Mk. 7:15~16)

• 고린보(11절) : 하나님께 드림, 장로들의 유전은, 자식이 부모에게 드려야 하는 의무를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말하?만 하면 더 이상 부모에게 드릴 의무가 없다고 가르쳤다.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본문 · 마가복음 8장 / 찬송가 · 84장

●●● 예수님과 함께 있는 지 이미 사흘이나 지났지만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는 많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떡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 마리로 약 사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1~10절). 그리고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14~21절).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22~26절)께서는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의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라고 대답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가르침에 항변하자 그를 꾸짖으신 예수님께서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27~38절).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던 제자들은 많은 가르침을 받고 또 많은 표적들을 경험했지만 그 관점이 예수님과 자주 달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들은 자신들에게 떡이 없음을 두고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시의 부패하고 악한 지도자들의 잘못된 교훈에 속지 말라고 가르치셨지만 그들은 떡이 한 개밖에 없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찾았던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주님께서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으심을 말씀하시자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오늘 우리들 역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 이 어리석은 제자들과 같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생각으로만 예수님을 이해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진실로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 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막 8:34)

Then he called the crowd to him along with his disciples and said: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k. 8:34)

· 누룩(15절) :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점차 팽창하는 부패와 타락, 그리고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악한 영향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

기도제목 ① 나의 가치관에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소서. ② 총현교회의 재단들유지 · 동산

· 복제가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양로원, 가평 · 함양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본문 · 마가복음 9장 / 찬송가 · 494장

●●●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서는 그들 앞에서 변형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말씀하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본 것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2~13절)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지만 제자들이 내쫓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시기를 구하자 예수님께서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14~29절).

귀신을 내쫓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해 달라고 요청하던 귀신 들린 사람의 아버지를 향해서도 예수님께서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을 능력이 있는 지에 관심을 가졌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제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한이 없으신 능력을 가지신 주님을 진실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마 17:2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산을 옮기는 놀라운 능력에 시선을 빼앗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막 9:23)
 “If you can?” said Jesus.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Mk. 9:23)

· 믿음이 없는 세대(19절) : 단순히 믿음이 약한 상태가 아니라 철저한 불신앙의 상태를 말한다.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② 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기도노트

본문 · 마가복음 10장 / 찬송가 · 322장

●●●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32~34절). 하지만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주의 영광 중에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 주기를 구합니다. 다른 열 제자가 이런 속셈을 드러낸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화를 내자 예수님은 자신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음을 가르치셨습니다(35~45절).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에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예수님의 사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에 있는 욕심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집권자와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상 그 죄로 말미암아 가장 낮고 비참한 존재에 불과한 사람들이 권세를 가지기 원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죄로 인한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가장 높은 지위를 버리고 낮고 천한 곳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세상의 헛된 가치관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 10:45)

For even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Mk. 10:45)

• 대속물(45절) : 노예나 포로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몸값의 의미였으나 여기서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생명을 바쳐 죄인을 해방시켜 주는 것을 뜻한다.

기도제목 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만 따르게 하소서. ② 종헌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만민에게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본문 · 마가복음 11장 / 찬송가 · 491장

●●● 스가랴 9:9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호산나를 외치는 우리들에 싸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1~10절).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서는 성전 안에서 물건을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사람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셨고 이 일로 두려워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모의합니다(15~18절).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기도하는 곳인 성전이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성전에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 원하셨지만 사람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자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그곳에서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강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한다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자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이 세상의 유익을 위해 신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나 자신의 안위를 지켜줄 절대자의 필요 때문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헛된 신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예배할 때 교회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 11:24)

Therefore I tell you, whatever you ask for in prayer, believe that you have received it, and it will be yours. (Mk. 11:24)

• 강도의 소굴(17절) : 예수님께서서는 성전 내에서 이루어진 상거래보다 오히려 그것을 주도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셨다.

기도제목 ① 영광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② 김동하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사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로 안수집사, 권사들이 십자가만 붙들게 하소서.

기도노트

본문 · 마가복음 12장 / 찬송가 · 497장

●●●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불의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로 책망하신 예수님께(1~12절) 바리새인과 헤롯당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허물을 찾기 위해 사람을 보냅니다. 그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이 질문에 데나리온에 새겨진 형상이 가이사의 것임을 확인하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13~17절).

불의하고 악한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기 위해 여러 수단과 방법을 사용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당은 자신들에게 눈엣가시와 같았던 예수님을 모해하기 위해서 손을 잡았습니다. 철저한 민족주의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로마의 후광을 입은 헤롯을 추종하는 헤롯당은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지금 같은 악한 목적으로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한 질문에 예수님께서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쾌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세상에 속한 가치는 세상의 왕에게 주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소유하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생명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만을 따라가던 어리석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소유하기 원하시는 생명을 찾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막 12:17)

Then Jesus said to them, "Give to Caesar what is Caesar's and to God what is God's." And they were amazed at him. (Mk. 12:17)

• 사두개인들이(18절) : 항상 복수로 나타난다. 보수적이고 모세오경을 중시했다. '구전적 토라'를 인정하지 않고 내세나 부활이나 천사 등을 부정했다.

기도제목 ①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충란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삶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교회, 그리스도인의 모임 (마 18:20)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자 한다면, 먼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구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나라를 만드셨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목적에서 이탈하여 실패하고 말았다. 이스라엘은 징계를 받아 이방 민족에 의해 자신들의 땅에서 쫓겨났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주셨고, 남겨놓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셨다.

그 역사는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 모습 속에 잘 나타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주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확장해 가신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증인들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신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고 나가신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마태복음 18:20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회중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회중 가운데 함께 하시고 다스리셨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회중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거하시고 다스리시고 보내신다는 다섯 가지 구도가 나타난다. 이런 구도로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만들어진 교회의 모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회중으로서의 제자들은 교회의 실제 모습이며,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성령의 통치와 지도를 받는 성령 하나님의 회중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이스라엘(모형)

택하심 : 영원한 언약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일방적인 은혜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대(창 12:1~2, 5~6).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이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후손은 육체의 혈통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씨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 이스라엘을 말한다.

부르심 : 내 백성(출 3:7)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대(출 3:6~8). 출애굽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고,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끌어 내셔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대(출 3:10; 6:7; 19:6).

거하심 : 성막과 성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성전에 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임재하셨고 그들과 교제하셨대(출 40:33~35; 레 26:12 왕상 8:10~11).

다스림 : 율법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과 왕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통해 다스리셨대(레 26:46 민 12:6 출 28:3 대하 6:6).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했고, 이방 나라 백성들과 구별되었다(신 4:8). 또한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기능을 오해하고 왜곡해서 자기들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실패했다.

남은 자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어가셨대(사 10:21 골 2:32).

2.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제자들(실제)

택하심 : 내 교회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구원의 방주로 삼으셨다. 자신의 육체를 성전으로 만드신 예수님은 그 성전의 기능을 대속을 통한 구원에서 완전히 이루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요 2:21 엡 1:23).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교회는 통일성을 이루고 그 안에는 다양성이 존재한다.

부르심 : 내 제자(마 4:19)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졌다(눅 14:26~27).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다(눅 14:33).

거하심 : 성육신과 동거하심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육신하시고 우리 가운데 동거하셨다.

다스림 : 천국과 복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통치하셨다. 그래서 모든 병든 것과 악한 것이 물러갔다. 죄의 권세가 떠나갔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사망의 권세도 물러치셨다(마 16:19).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로 통치하신다. 십자가의 도로 통치하신다. 따라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복음 중심으로 모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흠어진 자들 : 제자들도 이스라엘처럼 실패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흠어진 자들을 불러 모아 다시 보내셨다(눅 24:13~14 행 8:1).

3.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종언물(확정)

택하심 : 모든 민족과 땅 끝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창 26:4 마 28:19~20 행 22:37~39). 그래서 지금도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선택이 확장되고 있다.

부르심 : 증인(행 1:8) 증인의 요건은 성령의 임하심에 있다. 성령의 증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말한다(행 3:15 5:32).

거하심 : 성령의 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 하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대(딤후 3:5 고전 3:16).

다스림 : 성령의 충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령 충만으로 그의 교회를 다스리신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교회 공동체에 임하시고 거하셔서 다스리시고 교회를 순결하게 하신다. 성령께서는 순결하시게 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순결하게 된다(엡 5:18 갈 5:16).

보내어지는 자들 성령께서는 그의 증인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신다(딤후 2:2).

4. 도전받고 있는 현대 교회와 신자들

하나님 앞에서(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을 사모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경건한 삶을 회복해야 한다(딤후 2:15).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야 한다(갈 4:19).

성령을 따라서(성령의 증인들로서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령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는 증인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롬 15:16).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교회는 사람들 앞에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믿음으로 일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닮아 가자.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자.

2014년 제1차 청지기훈련 메시지(2014.2.21.)

4

주간총회에 게재된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읽으세요.

아브라함의 믿음

| 초점 |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단순하게 믿으라

| 찬송 |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송가 399장 어린 양들이 두려워 말아라

| 본문 | 창세기 22:1~2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
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
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 준 한 산 거기서 그
를 번제로 드리라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22 주일

23 월요일
□ 마가복음 13장

24 화요일
□ 마가복음 14장

25 수요일
□ 마가복음 15장

26 목요일
□ 마가복음 16장

27 금요일
□ 누가복음 1장

28 토요일
□ 누가복음 2장

※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시험은 어떻게 다른니까?

하나님의 요청

※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신 것은 무엇입니까?(창 22:1~2)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에게 세 번에 걸쳐서 언약을 주셨고, 마침내 언약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인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에게 백 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가혹한 요청을 하십니다.

※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어떤 시험을 주십니까?(고전 10:13)

망설이지 않음

※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했습니까?(창 22:3~4)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제물로 바칠 것을 요구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조금도 □□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망설이지 않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망설임 없는 순종은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생명의 주인을 의리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청에 대하여 주저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삭의 생명을 의탁하는 믿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창 22:5). 그는 종들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매우 모순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매우 확신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의 주인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다시 살리실 것도 믿었습니다(히 11:17~19).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함

아브라함은 하인들에게 이삭과 함께 다시 돌아올 것을 말함으로써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번제에 사용할 어린 양이 따로 준비되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했습니다.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창 22:13 _____

행함으로 증명함

※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창 22:9)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믿음은 단지 생각이나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실제로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제단을 쌓았고, 제물을 태울 나무를 준비했으며,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칼로 이삭의 몸을 찌르려고 했습니다. 그는 결코 위선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말리지 않으셨다면, 그는 실제로 이삭을 죽였을 것입니다.

단순한 믿음을 본받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단순히 하나님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린 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 18:3 _____

엡 4:13 _____

※ 단순한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유익을 줍니까?

| 믿음의 기도 |

- ①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즉각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따르게 하소서.
- ② 신령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소서.
- ③ 2014년 제2차 청지기 훈련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소서.

금요일 - 을을말 단송단

선 행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
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
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
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9~10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16

본문 · 마가복음 13장 / 찬송가 · 176장

●●●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신 예수님께서(1~2절)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의 징조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3~13절). 또, 멸망의 가까운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때에 일어날 큰 환난에 대해 경고하시고 인자가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14~27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이른 줄을 알라고 교훈하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날이 올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땅 위에서의 삶을 살면서 당장 자신 앞에 다가온 여러 가지 일들에 매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대해 아예 생각조차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징조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 날이 언제인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33절)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몇몇 사람에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37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고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막 13:37)

What I say to you, I say to everyone: 'Watch!' (Mk. 13:37)

• 사람들이 보리라(26절) :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어느 특정한 시간과 공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오실 것이다

기도제목 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게 하소서. ② 2014년 제2차 청지기훈련(6월 27일 금요일, 7시)에 모든 성도가 기도로 준비하여 참석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본문 · 마가복음 14장 / 찬송가 · 251장

●●●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3~9절). 이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셨습니다(12~26절). 또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신 예수님께서는(27~31절)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32~42절). 그리고 무리들에 의해 잡히셨고 공회 앞에서 심문을 받으셨습니다(43~65절). 그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한 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울었습니다(66~72절).

마가는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잡히시기 전후의 사건들을 긴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최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산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이 되셔서 무리들에 의해 잡히고 심문을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과는 달리 예수님을 사랑한 한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헌신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여인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그들은 삼백 데나리온이라는 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며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막 14:7)

The poor you will always have with you, and you can help them any time you want. But you will not always have me. (Mk. 14:7)

· 화를 내어(4절) : 마가는 화를 내는 사람들이 제자들이라고 밝힌다. 그들의 마음이 여인의 행동을 전혀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 계속 비난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기도제목 ① 주님을 사랑하며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기도노트

본문 · 마가복음 15장 / 찬송가 · 439장

●●● 빌라도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1~15절). 예수님께서서는 군인들에게 희롱 당하신 후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마침내 숨지셨습니다(16~41절). 그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청하여 예수님의 시체를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러 막았습니다(42~47절).

세상에 일어난 모든 중요한 일들을 다 더해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피조물인 사람이 되셨고 마침내 사람들에게 의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처형하는 십자가에 아무런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히셨고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위해 자기 백성들의 손에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의 삶인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듯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신의 삶에 실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머리로만 이해하고 마치 다른 사람의 일인 것처럼 여긴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행하신 은혜입니다. 결코 책에서만 보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만 굳게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막 15:39)

And when the centurion, who stood there in front of Jesus, heard his cry and saw how he died, he said, "Surely this man was the Son of God!" (Mk. 15:39)

• **이성히 여겨(44절)** :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들은 보통 2~3일씩 고통 받다가 죽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빌라도의 공식 검증과 보고를 통해 확인되었다.

기도제목 ①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총현의 교회학교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깨달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천국일꾼이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 아침 일찍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 때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이 이미 굴러져 있었고 무덤 안에 있던 흰 옷을 입은 청년은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알렸습니다(1~8절).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자신을 보이셨고 시골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으나 다른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9~13절). 하지만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서는 열한 제자에게 오셔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고 그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이르셨습니다(14~18절).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19~20절).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첫 번째 부활절 아침, 세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것을 예수님의 시체에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다시 살아나셨고 이미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해야 할 아침이 두렵고 떨리며(8절) 여전히 슬퍼하며 울고 있는(10절) 고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공생애 기간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부활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막 8:31; 9:31; 10:34). 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와 시골로 가던 두 제자의 증언도 믿지 않았습니다(11,13절).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두려움과 슬픔을 이기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살아계신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하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막 16:6)

"Don't be alarmed," he said. "You are looking for Jesus the Nazarene, who was crucified. He has risen! He is not here. See the place where they laid him.(Mk. 16:6)

• 굴러져 있는데(4절) : 피동형을 사용하여 돌을 굴린 행위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기도제목 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다시 사는 기쁨의 삶을 살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본문 · 누가복음 1장 / 찬송가 · 82장

●●● 헤롯 왕 시절,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천사가 나타나 그들이 아들을 낳을 것을 예고합니다(5~25절).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여섯 개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질 것이며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합니다(26~38절). 그리고 기한이 되어 엘리사벳이 요한을 낳았고, 요한은 자신이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대에 있었습니다(57~80절).

누가복음의 기록자인 누가는 데오빌이라는 사람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차례대로 기록한다고 밝힙니다. 그는 자신이 이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누가는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는 장면부터 글을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말라기에서 예언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올 선지자 엘리야"(말 4:5)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주의 길을 예비할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처럼(사 7:14) 남자를 알지 못하던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았고 마침내 신실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따르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약속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고 지금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눅 1:35)

The angel answered, "The Holy Spirit will come upon you, and the power of the Most High will overshadow you. So the holy one to be born will be called the Son of God." (Lk. 1:35)

• 차례대로(3절) : 이것은 연대기적 순서를 뜻할 수도 있으나 내용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도제목 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② 2014년 제2차 청지기훈련(6월 27일 금요일, 7시)에 모든 성도가 기도로 준비하여 참석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본문 · 누가복음 2장 / 찬송가 · 150장

●●● 가이사 아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호적하라 명령하였을 때 요셉은 이미 아이를 잉태한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에 이르렀고 거기서 아이를 낳아 구유에 뉘었습니다(1~7절). 그 지역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자 그들은 아기 예수를 찾아가 영광을 돌렸습니다(8~21절). 정결예식의 날이 되어 그 부모가 아기 예수를 예루살렘에 데리고 올라갔을 때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22~39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건장한 성인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몸에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께서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통인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낮은 곳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통치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땅 위의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낮추셨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히 성도를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눅 2:11)

Today in the town of David a Savior has been born to you; he is Christ the Lord. (Lk. 2:11)

● 좋은 소식(10절) : 그리스도의 탄생소식.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실 자체가 가장 기쁜 소식이며 그리스도께서 곧 복음이 대막 11).

기도제목 ①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장로 · 안수집사 · 권사 파택자들이 교육을 통하여 복음으로 온전히 깨져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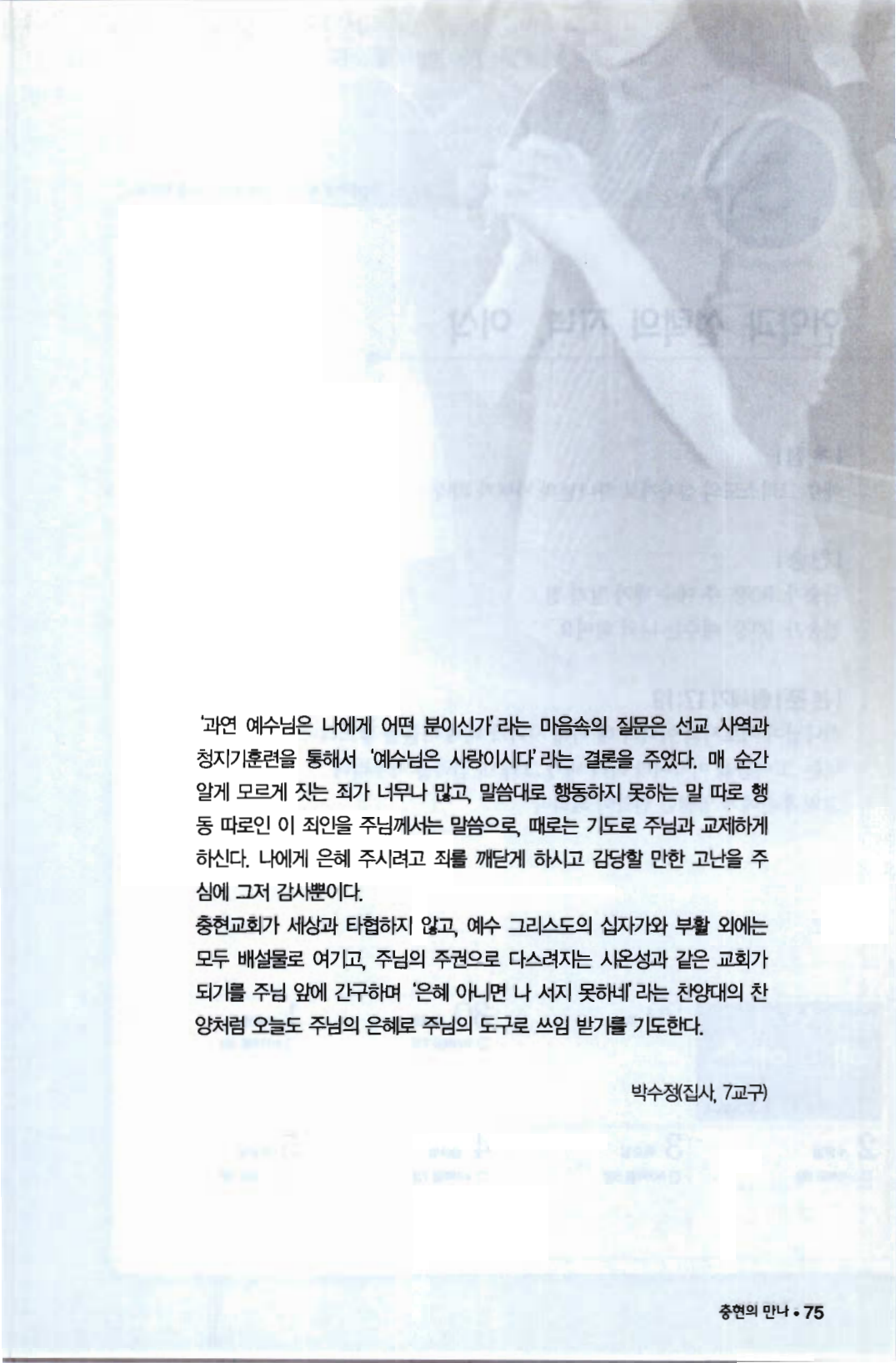
기도노트



예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

2014년 2월 14일부터 일주일간의 네팔 선교 사역을 마치고 21일 금요일 오전에 한국에 도착하여 집에서 잠깐 쉬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청지기훈련에 동참하였다. 허둥지둥 본당 2층에 들어서니 '교회,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란 제목으로 김동하 목사님께서 막 말씀을 시작하신 것 같았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죄가 죄 되게 하려 함이며,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죄인이며 회개해야 함을 깨닫는다. 주님이 택하시고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도 결국 실패했고,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까지도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신 주님에 대해 실망하며 부인하며 완전한 실패를 보였는데 하물며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주님은 한없는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품어 주시고 완전한 사랑을 이루신다. 세상에 의인은 오직 한 분 예수님뿐임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신다.



‘과연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라는 마음속의 질문은 선교 사역과 청지기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결론을 주었다. 매 순간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너무나 많고, 말씀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이 죄인을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때로는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게 하신다.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감당할 만한 고난을 주심에 그저 감사뿐이다.

충현교회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모두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의 주권으로 다스려지는 사운성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며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라는 찬양대의 찬양처럼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기도한다.

박수정(집사, 7교구)

5

주간총회에 게재된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읽으세요.

언약과 선택의 자녀, 이삭

|초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찬송|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본문| 창세기 17:19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29 주일

30 월요일

☐ 누가복음 3장

1 화요일

☐ 누가복음 4장

2 수요일

☐ 누가복음 5장

3 목요일

☐ 누가복음 6장

4 금요일

☐ 누가복음 7장

5 토요일

☐ 누가복음 8장

요 1:12~13 _____

※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뜻으로 됩니까?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이 백 세가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그에게 □□을 주셨습니다(창 21:3~5).

※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약속의 때를 늦추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을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동일한 원리를 적용했습니다(갈 4:4). 하나님의 지혜로 정해진 때에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지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대해 언급합니다(요 7:8; 8:20; 12:23; 13:1; 17:1).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성취됨을 말씀합니다.

선택된 자녀

※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이스마엘 가운데 언제, 누구를 언약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서는 처음부터 사라에게서 난 이삭을 언약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을 언약의 자녀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요건도 하나님의 선택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창 21:9~12).

※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우리가 불만을 토로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롬 9:21 _____

그것은 주인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죄인이요 심판의 대상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단지 감사할 뿐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녀

창세기 22:9~10의 말씀에 의하면 이삭은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 그 자신이 삶과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죽음의 명령에 따라 그의 삶과 죽음이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행한 두 가지 행동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줍니다.

※ 아브라함이 행한 두 가지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한 것이며, 두 번째는 그가 이삭을 실제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마음이 없었다면 그는 이삭을 굳이 묶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급하게 저지하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창 22:11~12 _____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이삭은 죽은 자와 다르 없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하나님

약속의 자녀요, 선택된 자녀요,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이삭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많이 닮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주셨던 이 약속과 선택과 새로운 삶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난 천국의 자녀들입니다(갈 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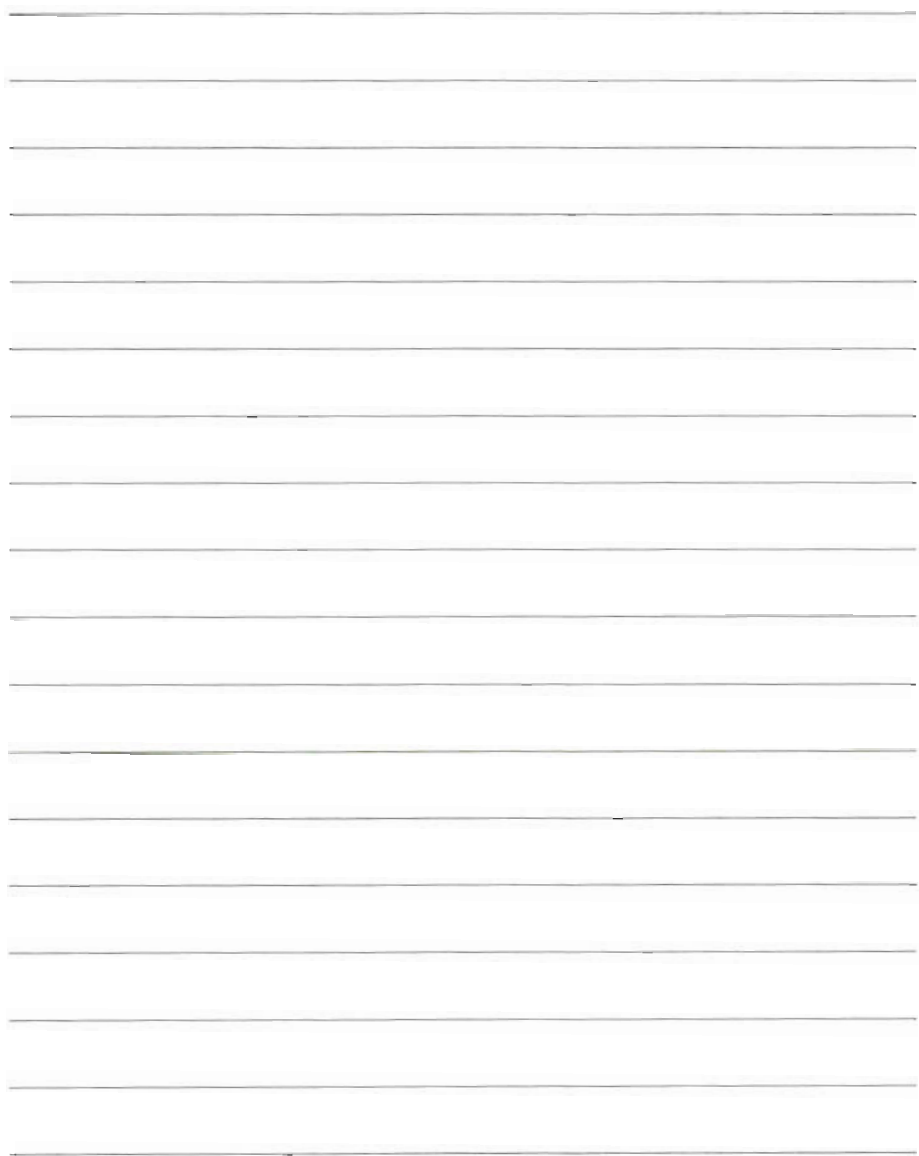
갈 4:28 _____

요 15:16 _____

※ 하나님의 자녀와 이 세상의 자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 믿음의 기도 |

- ①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늘 넘치게 하소서.
- ②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게 하소서.
- ③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입술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 〈중현의 만나〉를 통해 매일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주간중현〉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 552-8200(# 342, 348) / E-mail, psalms1715@naver.com

본문 · 누가복음 3장 / 찬송가 · 149장

●●● 요한은 요단 강 부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3절). 그는 무리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합니다(8절). 백성들이 혹시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생각하자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이가 오실 것을 선포합니다(15~17절). 하지만 그는 결국 분봉왕 헤롯에 의해 옥에 갇혔습니다(18~20절). 백성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고 예수님께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21~22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는 삼십 세쯤 되셨는데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면 결국 아담에 이르! 그 위는 하나님이십니다(23~38절).

예수님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 책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하지만 두 책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유대 민족이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었던 마태는 유대인들이 읽기 위한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방인이었던 누가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계보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 아담에 이릅니다. 누가는 예수님과 인류 전체의 연관성을 나타내려 한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지만 유대인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라도 모두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롬 5:19).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눅 3:16)

John answered them all, "I baptize you with water. But one more powerful than I will come, the thongs of whose sandals I am not worthy to untie. He will baptize you with the Holy Spirit and with fire.(Lk. 3:16)

· 삼십 세쯤(23절) : 제사장들이 본격적인 임무를 시작하는 시기(민 43)

기도제목 ① 값없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기도노트



구십구 세 때에

(창세기 17:1~5)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과 세 번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창세기 12장에서 언약의 기초를 마련하셨고(창 12:1~3), 두 번째로는 창세기 15장에서 실제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창 15:18). 그리고 끝으로 창세기 17장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그동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창 17:2). 그 두 가지 방법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의 이름을 각각 바꾸신 것과 할례라는 의식을 치르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함

그런데 아브라함이 세 번째로 언약을 재확인받기 전, 그의 영적인 상태는 매우 심각했습니다(창 16:16).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실제로 언약을 맺으시며, 그리고 그 언약을 거둬 확신시켜 주셨지만, 정작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은 비단 오늘의 본문에서 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하란에서 지체하였으며(창 11:31), 창세기 15장에서 횃불 언약을 통하여 확실하게 사라의 몸에서 낳 후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창세기 16장에서 여종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취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써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언약을 주셨음에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했습니다(창 17:17).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고 여겨졌던 아브라함 또한 우리와 동일하게 언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다시금 입증된 셈입니다.

찬송	다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봉독	사회자
기도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남성구역예배 순서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지만 아브라함의 언약함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 이후에 지속적으로 자신의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이가 75세였는데 그가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으니, 하나님께서는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실현하시는 일을 지체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긴 과정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시키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인내를 가르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참된 믿음은 세월이 흐르는 것과 관계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오늘의 본문 1절을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능히 성취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그의 나이는 구십구 세였고,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는 구십 세였습니다. 한 마디로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는 정상적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창 17:17).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생하시는 생명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녀를 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전능하심은 천국에 이르는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언약이 성취되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줄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충현의 만나 2014년 6월

Copyright© 2014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동하

편집인 | 강철형

집필진 | 이원용 한정민

발행처 | 충현교회 편집국(전화 552-82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7길 40(역삼동)[비매물]